

5·18 묘지 밝히고 무등산 오른 성화

빛고를 밝힌 '평창 성화'

문화전당 등 사흘간 96.1km

시민·체육인 등 342명 참여

올림픽 성공기원 행사도 다채

24일 무등산 장불재를 시작으로 광주를 달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화가 26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시청을 마지막으로 광주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성화봉송단은 26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출발해 서구 월드컵경기장 등 광주 시내 29.6km 구간을 달렸다.

성화봉송 행렬은 지난 24일 무등산 국립공원, 25일 국립 5·18민주묘지에 이어 이날 양림동 역사문화마을에서 광주의 역사와 문화, 명소를 세계에 알렸다. 양림동 일원은 우일선 선교사 사택 등 개화기 광주 근대문화유산의 보고다. 성화 봉송과 함께 광주의 상징적인 장소에서는 문화공

연도 계속됐다.

지난 24일 오후 6시부터 1시간동안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성공기원 대합창, 퓨전양상발 '블랑', LED트렌스댄스 '퓨리' 퍼포먼스 등이, 25일 오후 6시부터 1시간 동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고싸움 축제, 성공기원 대합창&치어리딩 퍼포먼스, 7080 추억의 올림픽 뮤지컬 등이 각각 개최됐다.

26일 오후 6시부터 1시간동안 광주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열린 마지막 행사에서는 평창올림픽 성공기원 대합창과 치어리딩 퍼포먼스, 올림픽 테마곡 및 패셔너 공연 등이 이어졌다.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는 3일 동안 광주 전역을 돌며 불꽃이 간직한 희망과 열정의 메시지를 전했다.

미국으로 입양되고 자원입대해 친부모와 상봉한 최승리씨, 지체장애 2급을 극복하고 육상선수로 활약 중인 양선영 선수, 육상 100m 한국신기록 보유자인 김국영

선수 등 모두 342명의 주자가 참여했다.

이주여성으로 성화 봉송에 참여한 김디나씨는 "결혼하고 6년 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자마자 큰 행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 기뻐했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 받은만큼 더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평창 성화봉송단이 광주에서 이동한 거리는 모두 96.1km다. 주자가 달린 거리는 66.9km, 자동차로 이동한 구간은 29.2km이다.

광주 봉송 기간 중 매일 성화가 도착하는 마지막 장소에서는 오후 6시부터 대회 성공 개최를 염원하는 축하 행사가 열렸다.

광주 일정을 마친 봉송단은 27일에는 수능시험 연기로 방문을 미뤘던 답양·곡성으로 이동하고, 28일부터 전북을 찾아가 간다.

지난 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접화한 불꽃은 101일간 전국을 순회하고 나서 내년 2월 9일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장 성화대에 오른다.

/유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지난 25일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제2회 운동주 서시 문학상 시상식에서 시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산맥 신인 시문학상 이동우·박동민 시인, 정남진 신인 시문학상 성금숙·김경린 시인, 운동주 서시 문학상 오태환 시인, 해외작가 특별상 문인귀 시인. ▶관련기사 22면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제2회 운동주 서시 문학상' 시상식 열려

광주일보-계간 '시산맥' 제정

오태환 시인 상금 1천만원

권귀순 시인 해외작가상

문인귀 시인 해외작가특별상

광주일보와 계간 '시산맥'이 공동으로 제정한 '제2회 운동주 서시 문학상' 시상식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수상자와 가족, 시산맥사회 회원, 문단 및 출판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시상식에서는 운동주 서시 문학상 수상자인 오태환 시인에게 상패와 상금 1000만원이 수여됐다. 또한 운동주 서시 문학상과 함께 제정된 운동주 서시 해외작가상 수상자인 권귀순 시인에게 상패와

상금 300만원, 서시 해외작가 특별상 수상자인 문인귀 시인에게 상패와 상금 100만원이 수여됐다.

김여송 광주일보 사장은 정후식 이사가 대독한 축사에서 "올해는 운동주 시인이 탄생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로 광주주일은 지난 4월부터 6개월에 걸쳐 운동주 기획 시리즈를 진행했다"며 "운동주 '서시'에 담긴 정성과 가치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함께 지켜가야 할 고귀한 유산"이라고 밝혔다.

이이 "올해 65주년을 맞이한 호남 최고의 전통 일간지인 광주일보의 그동안 호남예술제 개최, 문화매거진 '예향' 발행 등을 통해 호남의 문화예술 위상을 높여왔다"며 "앞으로도 운동주의 시 정신을 선양하고 확산하기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산맥 발행인 문정영 대표는 "오래 전부터 운동주 시인을 기리는 의미 있는 행사를 개최하고 싶었다"며 "이 상이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모든 행사와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식전행사로 운동주 시인 추모 헌화, 웃음꽃필하모니의 축하공연, 박금출 시산맥후원회장의 건강강좌가 펼쳐졌다.

시산맥사회가 주관한 신인상 등단패 증정식도 함께 열려 이동우·박동민 시인, 제2회 정남진신인시문학상 수상자인 성금숙·김경린 시인에게 상패가 수여됐다. 또한 시산맥사 2017 하반기 시집을 발간한 김계영, 김덕원, 박원외, 박재욱, 손한욱, 신지영, 임내영, 정안나, 주선균, 홍영수 시인에게 축하와 함께 상금이 지급됐다. /박성천기자 skypark@

광주시 "유발지진' 의심 지열발전 계획 없다"

2014년 치평동 하수처리장 인근 지하 3.5km까지 시추...경제성 등 불확실 사업 접어

포항 지진의 진원이 인근 포항지열발전소와 불과 1km 떨어진 곳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광주시가 추진했던 지열발전 사업도 덩달아 관심을 받고 있다. 광주시는 한 때 지열발전소 건립을 위해 서구 치평동 광주 제1하수처리장 인근의 지하 3.5km까지 시추했다.

해외에서도 지열발전소와 유정 등에 의한 '유발지진' 의심사례가 잦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광주시의 과거 지열발전사업에 대한 문외도 잇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26일 "현재 광주 지역에는 단 1곳의 지열발전소도 없고, 향후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최근 네티즌들은 지열발전과 지진에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

서 국내 어느 지역에 지열발전소가 있는지를 찾고 있고, 이 과정에서 광주시가 과거 추진했던 지열발전 사업이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현재 광주지역에는 지열발전 관련 시설이 전혀 없고, 관련 계획도 모두 중단된 상태다.

앞서 광주시에서는 지난 2014년 미국 구글이 투자한 신재생에너지 전문 회사인 알타라에너지 및 한진DNB 등과 함께 820억원을 들여 3.5MW급 지열발전소를 광주 제1하수처리장에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지열발전소는 시추를 통해 지하 깊숙이 구멍을 뚫은 뒤, 그곳에 물을 주입해 섭씨 150~200℃로 가열된 지하수로 난방열을 비롯한 전기 등을 만드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다. 광주에

서 추진하던 지열발전소는 땅을 최고 6km까지 시추할 예정이었다.

특히, 당시 광주지역의 한 중소기업은 물을 이용해 땅 속 깊숙이 구멍을 뚫는 '위터 해머'라는 시추 장비를 개발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하지만, 경제성이 불확실한데다 투자도 제때 이뤄지지 않는 등 어려움을 겪다 현재는 사업이 중단됐다.

한편, 정부는 최근 지열발전소와 지진의 연관성을 확인할 조사단을 구성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지열발전소를 논의할 때 가장 주목받는 사례는 스위스 바젤, 스위스 당국은 2009년 12월 깊이 3.4 지진이 발생하자 원인이 지열발전소라고 보고 건설을 영구적으로 중단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사회적 참사법' 통과...제2기 세월호 특조위 출범

지난 24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발생원인 등 사실관계를 가리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법이다.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에 이 법의 핵심이다. 이른바 '제2기 세월호 특조위'로 불린다.

사회적 참사법에 의한 2기 특조위는 박근혜 정부 때 활동한 1기 세월호 참사 특조

위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국정조사 특위 등이 미완에 그쳤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특조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이뤄지는데, 이 중 4명은 여당인 4, 4명은 야당이, 1명은 국회의장이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특히 사회적 참사법이 공포된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이 특조위 위원 임명을 마치고, 선임 절차가 지연될 경우 6명의 위원만으로 우선 특조위를 구성해 활동을 개시하도록 했다. 진상

규명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활동기간은 1년이며, 필요할 경우 1년을 연장해 총 2년 동안 활동할 수 있다.

조사 대상에 대한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고발 및 수사 요청, 감시원 감사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공개 청문회도 열 수 있다.

특조위는 조사를 마친 후 3개월 이내에 '중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와 대통령에 보고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특조위는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도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순천 해룡산단에 세계 첫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단지 조성

순천 해룡산단에 추진 중인 세계 첫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부품단지 조성 사업이 본래도도에 오를 전망이다.

전남도는 지난 24일 순천시청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순천시, 재료연구소, 전남테크노파크, 포스코와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부품산업 육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글로벌 마그네슘 연구센터 구축, 전용 생산단지 조성, 마그네슘 부품·제조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일자리 창출 등에 협력한다.

특히 순천 해룡산단에 3000억원을 들여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부품 단지를

조성한다는 정부의 지역공약사업 첫 단계인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독일 헬름홀츠 연구소, 폴크스바겐 자동차 연구소 한국센터 유치, 고비용·발하·부식 문제의 국제 공동연구 등에도

나설 방침이다.

우기종 전남도 정부부지사는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부품산업 육성은 세계적으로도 처음 시도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서 국제 시장을 선도하고 연관 산업인 자동차·전자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성장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투자·1순위

- 여수 거문도 섬 모든 부동산
- 2년안에 투자비율 100% 수익

상담문의 H.010-3605-5000

임야

바로 삽니다. 010-6838-123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태양광 발전소 삽니다! 팝니다!

태양광 100K·200K·300K·500K·1메가

- ▶ 견적 설계 · 시공(지상 임야 노지, 아파트, 주택)
- ▶ 태양광 부지 매입합니다.

태양광 발전소 관리 전문

- ▶ 각도 조절, 잡초 제거(물막, 애초기)
- ▶ 모듈 청소(발전량 상승) 관리해드립니다.

태양광 발전 전문기업

※ 영업사원 모집

(주)동현태양광ENG
☎ 063-225-1116
상당 010-8813-4770

한마음 공인중개사

- ▶ 신가동 4층상가건물 대지 240㎡ 보5천만원 월420만원포함, 매매가 9억5천만원
- ▶ 송정동 3층상가건물 대지 280㎡ 최고요지 보1억4천만원, 월70만원 포함 매매가 20억원
- ▶ 남구 봉선동 1층상가 120㎡ 인테리어 잘되어 있음, 최고요지, 아파트정문앞 상가 밀집지역 보5천만원 월340만원, 권리금 일천만원(조정가)
- ▶ 금곡동 총창사근처 고급 전원주택 대지, 전, 임야 3500㎡, 주택1층 126㎡(주택정원 잔디밭, 발, 주차장소재) 사정상급매, 매매가 7억원(조정가)
- ▶ 화순 도곡은천내 무인텔 대지3000㎡ 건물4층 3동, 객실 37개, 월매출 6천만~7천만원(정부공개기), 용지28억원포함, 매매가 37억원
- ▶ 담양 월산면 모텔(무인텔, 요양병원 최적합) 대지4200㎡, 계획관리지역, 건물2동있음(현재 담양군 모텔허가 안나옴) 철거후 무인텔허가 가능 매매가 10억원(조건부 협상가)
- ▶ 광산구 송치동 1800㎡, 1종일반주거지역, 매매가 3억원
- ▶ 제주시 과수원 1840㎡(도로있음), 1종일반주거지역, 매매가 4억4천만원
- ▶ 신안군 비금도 염전 (태양광), 25,000㎡ 계획관리지역, 매매가 4억5600만원
- ▶ 장성군 남면 행정리 440㎡, 1종일반주거지역, 매매가 9300만원
- ▶ 장성군 북하면 삼암리(백양사와 월산면 사이)

매물 접수, 상담 환영

☎ 문의 010-2314-8567 계림오거리

송정리 부동산 매물

- ▶ KTX 개통 최대 혜택지
- ▶ 투자가치의 3개소
- ▶ 11억, 12억, 19억
- ▶ 각 코너 위치

※ 2018년 초 복합환승센터 착공예정

신안군 염전 매물

- ▶ 대형부지 (만오천평)
- ▶ 태양광 부지로 검토 필요
- ▶ 투자가치

문의 010-5236-7458